

국힘 ‘5·18 진압 주도’ 정호용 영입 시도에 지역민 분노

선거대책위 상임고문 임명후 해촉
한덕수 ‘광주사태’ 발언 이어 물의
오월단체 ‘5·18 희생자 모욕’ 반발
“내란 후계자” 스스로 인정” 비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유혈 진압을 지휘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5시간 만에 해촉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오월단체는 이들의 역사관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용 전 장관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인물로,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서 벌어진 유혈 진압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고, 1997년 대법원은 그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군사반란을 주도하며 계엄

군을 광주에 투입했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이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5월27일 당시 숨진 광주시민이 추가로 발견,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또다시 고발되기도 했다.

정호용의 상임고문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지역사회와 오월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비록 임명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 자체가 김문수 후보 선대위의 역사관을 보여준다”며 “정호용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5·18의 역사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다. 김 후보와 당은 직접적 사과와 함께 합당한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엄군의 구타 후유증으로 가족을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윤석열 내

란 공범도 모자라 5·18 배후 5적을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하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오월 영령을 모욕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인 정종용(60)씨는 “계엄 주도 세력이었던 정호용을 위촉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너무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장지석(26)씨는 “이번 결정은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하루 만에 번복됐다 해도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5·18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호용 인선 논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 사태’ 발언에 이은 5·18

관련 논란이다. 한 전 총리는 최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5·18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이 표현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소란) 사태’로 규정하며 사용했던 용어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정호용과 같은 내란범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철회한 행위는 김문수 후보가 전두환과 윤석열을 잇는 ‘내란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이번 시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자 광주·전남을 무시하는 처사다. 5월 영령과 광주·전남 사·도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보단 역시 “정호용 임명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민주

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재집결”이라며 “민주주의를 학살한 인물을 대선 캠프에 영입한 김문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지방 일정 중에 있었던 일로, 미리 상의된 것이 아니었다”며 “업무 착오로 발생한 일이다.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5·18 추모기간 발생한 이번 사태는 오월 정신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금 흔들고 있다. 역사관 논란에 당은 정호용 임명 해촉과 해명으로 무마하려 했지만, 지역사회와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는 17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를 준비 중인 5·18 민중항쟁 행사위원회는 김 후보 측에 ‘참석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국민의힘 선대위는 현재까지 김 후보의 참석 여부에 관해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현·윤준명·이정준·정승우 기자

김영록 지사 “한센인 복지 증진·인권 향상 전력”

소록도병원서 제22회 기념식
편견 없는 사회 연대 등 다짐
복지부에 국립의대 추진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센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센인 1000여 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함께해 한센인의 인권 향상과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다.

또한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묵묵히 헌신한 마리아나와 마가렛 두 분의 송고한

사랑과 봉사 정신도 재조명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68명)에게 생계비 지원 △정착마을(8개소)과 생활시설인 여수애양평안요양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한센병관리협회(2개소) 보조금 지원 등 한센인 생활안정과 실질적 지원에 힘써왔다.

김영록 지사는 “개원 109주년을 맞은 이곳 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생명 존엄을 지켜온 상징적 공간으로 한센인 삶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유산”이라며 “전남도는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이날 조규홍 장관에게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강기정 시장, ‘생애 첫 투표’ 고등학생 독려… 참정권 의미·가치 공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금파공업고등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18세 학생들과 참정권의 의미를 나눴다.

이 자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내기 유권자로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생들에게 투표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

됐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광주지역 18세 청소년은 6457명이다.

강 시장은 이날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한 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결과고, 대한민국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

음으로 87년에서야 직선제가 도입됐다”며 6월 민주항쟁,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민권운동 등 투표권 투쟁의 역사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투표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어졌다”며 “생애 첫 투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고, 투표권이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들은 가족·이웃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

구독신청
광고문의

(062)510-0471
(062)512-0100

채권신고공고(1차)

본 조합은 2025년 04월 23일 당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의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광주서점협동조합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177번길 3-1 (농성동)
청산인 김길중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적도
선박특수촬영 / 생산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 발전사업의 명칭 : 진도그린 태양광발전소 4호
- 발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980 외 75개 필지
- 발전소 면적 : 298,234.6㎡ (90,216평)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1) 발전설비 용량 : 태양광설비 48M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7월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3)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김해나
-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5. 5. 16. ~ 2025. 5. 22. (7일간)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kjsup153@gmail.com
- 연 락 처 : 070-4667-6566

주식회사 진도그린태양광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동 (062)519-0710

全南日報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은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